

# 광주시 10년 공들인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 다시 나선다

KBSI·울산시·강원도와 협약  
신소재·에너지·의생명 중심  
권역별 구축으로 유치전략 선화  
‘제2의 반도체’ 1조원대 사업비  
이용섭 시장 “미래 성장동력 창출”

광주시가 사업비 1조원대 규모의 ‘초광역 국가 고(高)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산시, 강원도와 손을 맞잡기로 했다.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에 집중해 온 광주시는 그동안의 유치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자기장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연관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소모적 경쟁은 그만·광주·울산·강원 뭉쳤다=광주시, 울산시, 강원도 등 3개 자치단체는 지난 12일 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본원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 신형식 KBS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BSI와 3개 지자체인 광주시, 울산시, 강원도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에 보면, KBSI는 국가적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지원 시설 운영 등 3개 권역별 연구인프라를 총괄 지원하고, 광주시는 신소재 중심, 울산시는 에너지 중심, 강원도는 의생명 중심의 지역별 핵심대상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고자기장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2의 반도체 ‘고자기장’ 미래발전 이끈다=고자기장(High Magnetic Field)은 자기장의 세기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자기장을 활용한 유망한 연관산업은 초전도 터빈(회전기), ESS, MRI, 고자기장 연구장비 산업 등이 있다. 관련 응용산업은 하이퍼루프, 전기차, 신약·백신·항생제 개발 등 소재 및 전력, 의생명,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도 불리는 고자기장을 다루는 연구시설은 방사광가속기, 중성자 산란 실험 장치와 함께 현대 응집 물리분야에서 3대 핵심 거대 연구시설로 꼽힌다. 광주시가 유치하려는 고자기장 연구소는 아직 국내엔 한 곳도 없다. 해외엔 미국 3곳, 일본 3곳, 프랑스 2곳, 중국 2곳, 네덜란드 1곳, 독일 1곳 등 12곳이 조성돼 다양한 기초 과학 분야를 선점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과 100년 미래 책임질 양 날개 삼는다=2012년부터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에 나선 광주시는 2016년 기획연구를 시작하는데 이어 지난해 6월 KBS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 부처·국회·연구기관 등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서울대학교 기초전력연구소를 방문해 서울대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이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한승용 교수 등과 함께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을 논의하고, 지난 3월엔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올 6월부터는 광주, 울산, 강원 및 KBSI 공동으로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적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활용 및 관련 응용분야 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 중이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10년간 1조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반드시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를 유치해 민선 7기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산업과 함께 광주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양 날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만 사업 시대를 위해선 첫 국비확보가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소 정문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소 노조·시민대책위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 대우조선해양으로 들어가던 중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가 절실한 대목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과학분야와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고자기장 연구를 선점해 미래 첨단산업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전략산업인 첨단의료, 에너지산업, 친환경자동차 등에 고자기장 연구 결과를 접목시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역벤션 털고 상승 모멘텀 노리는 이재명 “지지층 결집 시작...이제부터 진짜 승부”

갤럽조사 윤석열과 지지율 점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 이후 한 달 가장 지속된 정체기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세를 노리고 있다. 경선 후폭풍의 여파로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역벤션’이란 말까지 나온 터다. 맞선대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경선승리 후 곧바로 상승세를 타면서 더욱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게 이 후보 측의 분석이다. 경선 당시 경쟁 후보를 포함해 당 소속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계기로 ‘원팀’ 진용을 짜면서 상승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측 컨벤션 효과도 곧 주춤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14일 “윤 후보 쪽이 우리 보다는 컨벤션 효과가 더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크게 뒤쳐지지 않다가 지난 주 후반에 잘 따라잡았고, 이번 주엔 결국 점진 양상으로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간만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좁혀졌다.

민주당과 이 후보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물고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곧 지지율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후보가 최근 ‘당내 대사만’을 언급한 것도 당의 최대 지역기반인 호남 세력을 포용하고 범여권 결집의 승부수를 던진 차원으로 해석된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이후 보수 지지층이 최대 결집 상태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제 당내 통합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호남, 열린민주당 등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를 타고 충청·호남 등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세몰이에 나서는 한편 취약 지지층은 2030 세대의 표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띄울 계획이다. 다만,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의 행배가 변수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영길 “이재명 후보 부부싸움’ 루머는 조직적 음해” 총력대응 지시

당선관위 이재명 119 통화 공개

“아내 토하고 열상...응급실 가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최근 낙상사고와 관련한 루머들을 ‘조직적 음해’로 규정했다. 이 후보 아내 김씨는 최근 낙상사고 당시 상황을 전화로 공개했다.

송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후보가 부부싸움했다는 유언비어가 허황된 사실임을 집적해하는 이재명 후보님과 김혜경 여사님의 직접 통화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라며 해당 영상을 올렸다.

송 대표는 “제2의 실랑단’처럼 조직적 음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님은 크라켄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 흑

시 매크로를 돌리는 사람이 있는지 내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송 대표는 이번 통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은 소속 의원 모두의 페이스북에 올려 유언비어에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경남 거제시 육계해수욕장 오토캠핑장에서 지역 예비부부와 함께하는 ‘명심 캠프’ 토크쇼 도중 아내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여보세요, 어 자기야”라며 전화를 받았고, 이 후보가 “당신이 두 번 만에 받아줘서 다행이다”라고 답하자 두 사람 모두 웃었다. 김씨는 “제가 좀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며 “내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짙다던 다음에 우리 남편이 저기서 막 울고 있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좀 멍클했어

요”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내가 때려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그건 누가 일부러 한 것이다. 딱 그게 몇 시간 만에 전국에 카톡으로 뿌려지고 그랬잖아”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는 14일 김 씨의 낙상사고 당시 이 후보의 119 신고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선대위 현안대응TF가 이날 오후 공개한 50초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9일 새벽 0시 54분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이 후보는 거주지 주소와 아내 김씨의 증상, 코로나19 의심 증세 여부를 묻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질문에 답했고, 자신의 신분이나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아내의 증상에 대해 “지금 토사곽란(토하고 설사해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에다가 얼굴이 좀 짙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119에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령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 전공)			
<b>총 계</b>		<b>93</b>	<b>29</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